

회색 무지개

용인 풍천 초등학교

4학년 6반 진효율

아름답지도, 예쁘지도 않은

회색 무지개

온갖 더러움과 아픔을 다 안고

살아간다네

한때는 고운 빛의 일곱빛깔 무지개

화려함을 뽐내며 모든 사랑을 듬뿍 받았지

아침마다 일어나 높은 산을 바라보고

비가 오면 밖에 나가 친구들과 뛰어놀고

비가 그치면 땅과 하늘을 이어주던 일곱 빛깔의 무지개를 보던 우리

하지만 이제는 볼수 없는 고운 빛깔들

‘편리’라는 악마가 나타나

하늘과 땅, 무지개까지 먼지로 덮어버리고

‘개발’이라는 악마가 나타나

그들을 지켜주던 나무들마저 베어가네

그 고통 누가 알아줄까

‘편리’와 ‘개발’을 목적으로

무참히 파괴되고 더럽혀져가는 우리 지구

회색 무지개를 일곱 빛깔 무지개로 돌려놓을 방법이 없을까?

필통 속 지우개로 지우면 지워질까?

하얀 휴지로 닦으면 닦아질까?

그것은 아주 간단하지

모두가 힘을 합쳐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실천하기

내일의 무지개를 꿈꾸며